

Anthony J. Tomasino 박사, 예수 이전의 유대교, 세션 1, 큰 그림

© 2024 토니 토마시노(Tony Tomasino)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저는 예수 이전의 유대교, 세션 1, 큰 그림에 대해 토니 토마시노(Tony Tomasino)입니다.

이제 구약과 신약 사이의 시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스터리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익숙한 신약성서의 세계에서 덜 친숙한 구약성서의 세계로 갈 때 약간의 충격을 받고, 우리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왔는지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지배하에 살고 있으며 갑자기 로마인과 로마 제국을 다루고 있으며 그리스어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개신교인들이 전통적으로 침묵의 400년이라고 일컬은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랜 암흑기입니다. 이제 사실은 정말 조용하지 않습니다. 유대교의 문학적, 신학 적, 문화적 발전의 시대입니다. 구약의 세계와 신약의 세계는 매우 다르며, 서로 다른 시대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다른 종의 인간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자료, 특히 개신교 성경을 볼 때 구약성서에서와 같이 우리에게 다소 어색함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대왕국, 아시리아 제국, 바빌로니아와 같은 것을 봅니다. . 우리는 히브리 왕조, 배도, 우상 숭배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를 읽은 다음 신약성경에 이르면 완전히 다른 집착에 대해 읽게 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 사상에 대한 집착은 사실상 신약성서 전체의 중심 주제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상은 사실상 신약성서 전체의 핵심 주제가 됩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개념은 구약성서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중간기 문헌 중 일부를 보면 그 사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한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보게 될 주제 중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신약약 중간기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탐구하게 될 아이디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감사입니다. 제 이름은 Tony Tomasino이고, 현재 미시간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입니다. 저는 이전에 구약성서 및 중간 연구 교수였으며, 우리는 신약성서 세계를 형성하는 몇 가지 아이디어, 사건 및 주제를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400년의 침묵의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미 언급했듯이 그것은 결코 침묵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양은 방대하고 종종 모순적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모두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거나 오래된 발견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내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시기를 겪으면서 선택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지만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주요 주제인 여러 역사적 사건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공격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약성서의 세계가 존재하는 방식을 보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방식은 구약의 세계를 기반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의 세계와 신약의 세계 사이의 간격을 메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성서의 세계가 이상하고 거슬리는 종류의 불연속성이 아니라 구약성서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의 일종의 자연스러운 진행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배우고 싶은 방식은 먼저 사물의 큰 그림을 파악한 다음 돌아와서 빈칸을 채우고 세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하세요. 우리는 큰 그림을 그릴 것이고, 그런 다음 다음 강의를 진행하면서 다시 돌아와 세부 사항에 더 집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작성할 것입니다. 잠시 멈춰서 몇 가지 본문을 살펴보고, 몇 가지 아이디어와 주제를 살펴보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결합하여 구약 사이에 놀라운 다리를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구약성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복습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성경은 문자 그대로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성경의 첫 장에 나오는 단어들은 세상의 창조를 언급하고 있으며, 창조 이야기에서 우리는 빠르게 민족의 창조로 나아갑니다. 날짜를 정하는 것은 항상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구약 시대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족보를 바탕으로 사물을 재구성하므로 어서 주교와 같은 사람들이 쓴 유명한 연대기가 있습니다. 연대기는 숫자를 더해 날짜를 계산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계보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어서 감독이 그랬던 것과는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계보가 다소 선택적인 경향이 있고 종종 현대 계보가 작동하는 방식과 다른 규칙에 따라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성서의 내용에 날짜를 정하는 것이 항상 가장 현명한 행동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했듯이, 천사들이 밟기 두려워하는 곳에는 바보들이 달려들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즉시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자 민족의 조상인 아브람의 부르심은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아브람의 부르심은 아마도 우리가 청동기 시대라고 부르는 기원전 2000년쯤에 일어날 것입니다. 아브람이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네게 땅을 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이 되게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되게 하리라 누가 너희를 저주하느냐, 우리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 혹은 스스로 복을 얻을 것을 보리라.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노라.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이스라엘의 시작이다. 이어서 창세기에는 족장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국가의 기초를 이루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고, 창세기 끝 부분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이주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곳에서 요셉의 전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의 첫 번째 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로 갑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창세기). 이후의 책에서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그 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일으키셨는데 모세는 백성을 구원하는

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여 그 백성을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시고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십니다. , 우리가 토라에서 찾을 수 있는 율법, 오경에 있는 모세의 율법을 제공하며, 그 율법은 구약의 처음 다섯 권의 나머지 대부분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약속의 땅 가장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그곳 미디안 평지에서 죽고 여리고 전투에 딱 맞는 그의 제자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의 고삐를 넘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백성을 인도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는 사사라고 불리는 이들에게 리더십의 통치가 이어졌고, 사사는 포로들로부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들입니다. 사람들은 또한 단순히 군벌이나 그와 비슷한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판사라고 부르는 일종의 사법적 역할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사사 기간은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며, 사사 기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여기에 사사 시대가 있었고,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카리스마적 리더십 체계에 대한 불만의 소란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재판관들의 지도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왕이 필요하다고 백성들이 외치는 책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라는 이름의 사람은 아마도 기원전 1050년쯤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더 확실하게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시기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또한 상대적이지만 우리가 타임라인에서 어디에 있는지 에 대해 조금 더 확실해졌습니다 . 그래서 대략 기원전 1050년경에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 즉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사울은 몇 가지 주요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이름의 동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추구했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늘 다윗을 쫓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한동안 다투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꽤 규모가 큰 제국의 왕이 됩니다. 그의 시대가 지나면 그는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대체됩니다. 솔로몬은 이 제국의 왕이 되어 왕국을 더욱 확장합니다.

그의 시대에 여호와의 큰 성전이 예루살렘에 건축되었으며, 이는 물론 성전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신앙의 기초로, 중심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솔로몬 시대 이후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어느 정도 불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그의 배도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두 왕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10지파로 이루어진 북왕국은 그 수와 정체성이 가끔 헛갈릴 때도 있지만, 어쨌든 북왕국 10지파가 왕국의 중심을 사마리아에 두었고 그곳이 수도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왕국. 남쪽 유다 왕국은 수도를 예루살렘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서에 따르면 북쪽 왕국에는 선한 왕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선한 왕이 없는 주된 이유는 그들이 벤엘과 그 땅 주변의 다른 신전에 자신들의 신전을 세웠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이 북방 왕들을 좋아하지 않는 데에는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을 배교한 자로 여기므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심판할 한 나라를 보내시는데 그 나라가 앗수르입니다.

아시리아인들은 북쪽 메소포타미아에 위치한 셈족 민족으로, 매우 교양 있고 사납고 그들의 방식이 뛰어난 민족이었습니다. 앗시리아인들은 이 멋진 예술 작품 중 일부를 제작했는데, 이 작품을 연구한 사람들 중 일부에 따르면 여기에서 우리는 아마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의 어깨 위에 발을 올리고 있는 앗시리아 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인들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함한 중동 대부분을 정복했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모두 아시리아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앓수르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국가들의 연합에 합류했고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아시리아 제국 주변의 여러 지역으로 추방했고, 그 땅, 그 북부 지역에 다시 거주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열 지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추방되고 다른 외국 출신의 사람들이 끌려왔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거기에는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며 아마도 당시에는 약간의 통혼과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이것에 대해 다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인의 이 행동에 대해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는 신약성서에서 매우 중요해진 전체 그룹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유다는 앓수르 사람들의 총탄을 피했고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 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당시 어떻게 앓수르 사람으로부터 구출되었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신실한 자들을 위해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갖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 시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중동의 정치가 유다도 그들의 바퀴 아래서 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성경의 설명은 유다도 배교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므낫세라는 이름의 어떤 왕은 바알 신에게 제단을 쌓고 아이들과 그와 같은 모든 종류의 재미있는 것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나 므낫세의 배도 때문에 하나님은 족하다고 말씀하셨고, 유다는 북쪽 이웃인 이스라엘과 같은 운명을 겪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시리아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빌로니아인이라고 불리는 다른

셈족 민족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바빌론은 고대의 위대한 왕국이고 바빌로니아인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이때 바빌론 사람들은 특히 느부갓네살이라는 동료의 지도 아래 일종의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지도력 덕분에 바빌론 왕국은 앓수르와 그 주변의 다른 땅에 손을 뻗어 정복할 수 있었고, 결국 유다도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다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반역했기 때문에 그들의 형제인 이스라엘 사람들로 부터 교훈을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대부분 파괴되었습니다. 벽이 무너졌습니다.

솔로몬의 큰 성전은 파괴되었고, 유다 왕은 유다의 많은 지도자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바벨론 유배라고 부르는 기간을 소개합니다.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기간이 70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40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글쎄, 그것은 모두 당신이 포로로 간주되는 정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587년에서 538년, 538년에 포로 생활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잠시 설명하겠지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즉시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사실, 많은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 남아 있기로 선택했으며,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들에게 닥친 이 황폐로부터 나라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587년부터 538년까지 실제로 상류층 유대인들의 대규모 인구가 바빌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실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 선한 백성이라고 부르고, 그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나쁜 무화과, 즉 도덕이 더 의심스러운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말할 수. 그들은 결국 땅의 사람들로 알려지게 되었지만, 그것은 좋은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무를 켜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웃의 방식을 채택한 사람들과 주님을 숭배하는 유대인의 특징을 많이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빌론에서는 유대인 공동체가

폐쇄적인 대열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시점에서 그것이 일종의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점은 생략하겠습니다. 가까운 순위에 있던 그곳 사람들은 이웃에 대해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었고, 구약에서 찾을 수 있는 많은 중요한 전통이 바빌론에 있는 이 공동체에 의해 굳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538, 538의 특별한 점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우리는 구약성서의 마지막 부분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때때로 그는 세계 역사상 최초의 진정한 개인으로 불려왔습니다. 이는 이 사람을 설명하는 흥미로운 방법이지만, 키루스 대왕은 실제로 대왕이라는 칭호를 얻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으로 불려왔습니다. 키루스는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고레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하겠지만,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는데 성공했고, 바벨론을 정복할 때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바벨론 포로를 허용하는 법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포로들은 풀려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백성과 유다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일종의 세계 문화 중심지였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과일과 와인, 그리고 모든 재미를 얻었습니다. 바빌론으로 내려가서 위대한 건축물 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본향으로 돌아가면 폐허로 돌아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곳을 다시 재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 남아 그곳에서 매우 활기찬 유대인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사실, 바빌론에 있던 유대인 공동체는 예수 시대까지, 예수 시대를 훨씬 넘어, 실제로는 무슬림이 정복할 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나라를 재건하는 놀라운 일을 위해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새로운 성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은 분명히 성전 공사를 거의 즉시 시작했지만 기원전 515년이 되어서야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시작한 지 약 20년이 지나서야 실제로 작업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는 백성들이 새 성전을 보고 기뻐서 울지 않고 울었다고 나옵니다. 옛 성전의 모습을 기억할 만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 새 성전이 옛 성전의 영광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그 성전에 쏟아부으실 것인지, 그리고 이 시대의 가난 속에서도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 성전의 건축은 우리가 두 번째 성전 기간이라고 부르는 기간이 시작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은 두 번째 사찰이다. 솔로몬의 성전은 첫 번째 성전이었고 지금은 두 번째 성전입니다.

서기 70년에 끝난다고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때가 로마인에 의해 성전이 파괴된 때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로마인에 의해 파괴된 성전은 이 시대에 스룹바벨이 건축한 성전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야기하게 될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성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사원 주변의 사원. 그런 다음 그는 이 오래된 성전을 해체하여 문 밖으로 끌어냈는데, 이 헤롯의 새 성전은 장엄한 건축물이었고, 세계의 가장 큰 불가사의 중 하나였으며, 내가 아는 한 오늘날까지도 가장 큰 성전 단지였습니다. 이제까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간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구약성서의 마지막 역사적 에피소드는, 적어도 우리 개신교 구약성서에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사역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 중 누가 먼저 왔는지, 정확히 언제 일했는지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확히 기원전 440-445년경, 때로는 그 기간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일은 그들이 제공하는 1인칭 기록과 일부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추가한 거예요. 그러나 모아진 책들은 이 두 총독이 지금은 유다에 왕이 없고 총독이 있고 그들은 이 시점에서 페르시아 제국 아래 있지만 이 두 총독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연대기를 제공합니다. 각자는 유대 민족을 재건하고 재건하는 일을 돕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임명되었습니다. 에스라는 이 시대의 주된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는 율법을 표준화하고 실제로 모세의 율법을 다윗 왕 시대보다 훨씬 작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적용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차적인 임무를 맡은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벽이 없는 도시는 전혀 도시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자부심의 문제였습니다. 국가 안보의 문제였지만 더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성벽이 당신을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중에 미슈나와 다른 유대 문헌에서 우리는 사람과 도시의 차이는 벽이라고 실제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벽은 그들을 도시로 만들고 예루살렘을 다시 하나의 실체로 창조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서 중간지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그것은 크고 어두운 이상한 일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아마도 여전히 크고 어두운 이상한 일이지만 그렇게 큰 어두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좋아요.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은 전성기에는 당시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지점에서 이집트까지 퍼졌습니다. 그것을 유지하지는 못했지만 거기서 퍼졌습니다. 때때로 그리스의 일부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페르시아와 그리스 사이의 투쟁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계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제국은 약 200년 동안 토지의 상당 부분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 아래서 꽤 행복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특정 범위 내에서 다양한 견해와 원주민 관습 및 종교에 대해 꽤 관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제국은 실제로 지도력 스타일이 정복의 지리적 범위를 유지할 수 없는 지점까지 성장했습니다.

따라서 기원전 500년부터 479년까지 페르시아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일련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갈등은 페르시아와 그리스 세계의 운명뿐만 아니라 실제로 유대 민족과 우리의 운명도 여러 면에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멋진 일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페르시아인을 미친 야만인으로 묘사하고 그리스인을 고귀하고 강력한 전사로 묘사하는 300과 같은 영화와 기타 할리우드 제작물 덕분에 페르시아 전쟁에 대한 멋진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는 중요한 것은 그들의 갈등으로 인해, 주로 여기 소아시아의 특정 식민지, 즉 이 두 나라에 관한 문제와 투쟁으로 인해 시작된 이 두 나라가 큰 갈등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리스인들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인들이 주로 승리한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의 천재성 때문이었습니다. 자, 알렉산더는 주목할 만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알렉산더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역시 위대한 개인 중 한 사람이자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인 변화에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세상에 있는 곳.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은 마케도니아 출신의 장군이자 슬래시 왕으로 그리스 제국을 동방 영토로 확장하는 일을 스스로 맡았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과 직접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자신의 개인적 탁월함 덕분에, 또한 그보다 앞서 여러 민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 거대한 제국을 정복하고 그들을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의 노예 아래로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알렉산더의 제국은 그가 정복한 페르시아 지역을 고려하면 광대한 지역에 걸쳐 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를 정복했고, 소아시아 전역은 물론 그리스 전역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국은 그의 죽음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 그의 장군들 중 몇몇이 말다툼을 시작했고, 그 말다툼은 결국 그의 제국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유다의 경우에는 유다를 놓고 싸울 두 가지 매우 실질적인 세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실질적인 세력은 우리가 셀레우코스 제국과 프톨레마이오스 제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글썄, 셀레우코스 제국은 결국 그 작은 투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는 자신들이 정복한 민족들에게 그리스 문화가 전파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 중 가장 열성적인 사람 중 하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Antiochus Epiphanes)는 유대인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가 유대교가 문제라고 판단했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교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완강한 이유에 대한 문제라는 확신 때문에 적어도 그가 통제하는 영역에서 유대교를 근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안티오칸 박해라고 부르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피비린내 나는 폭력적인 숙청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결국 이에 반대하여 부르짖고 안티오코스에게 맞서 일어나 외국 지도자들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마카베오 반란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나중에 설명할 이유로 인해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Hasmonean은 실제로 조금 더 정확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167년에 유대인들은 그리스 군주들, 즉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꽤 오랜 투쟁 끝에 그들은 그리스로부터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580년부터, 아니 실제로는 기원전 605년부터 대략 기원전 140년까지 유대인들은 외국인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카베오서에 따르면 기원전 140년에 그들은 이방인의 멍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지평선 너머에는 탐욕스러운 눈을 동쪽으로 돌리는 또 다른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스모니아 왕국은 기원전 63년까지 지속되었으며 이곳에서 꽤 많은 영토를 정복했습니다. 그 전성기는 아마도 옛날 다윗 왕국 정도의 규모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태를 유지한 것은 부분적으로는 외부 압력 때문이기도 했지만 부분적으로는 싸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기원전 63년 로마인들이 동쪽에 도착했고, 로마인의 도착은 예상 가능한 결과를 낳았다. 로마인들은 유다를 정복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매우 실용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지 않았다면 유다를 정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번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BC 63년에 유대(이 시점에서 소위 말하는 유대)를 그들의 제국에 추가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점은 유다 정복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앗수르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아시리아는 여기 이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둘 다 셈족입니다. 아시리아인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아람어였는데, 이는 히브리어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종의 친족 관계라고 부를 수 있는 일종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

이제 아시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무자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Romulans 대 Vulcans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tar Trek 팬 여러분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시리아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유대인의 다음 대군주인 바벨론은 지리적으로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지역에 훨씬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있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념적으로도 조금 더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이사야서에서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의 창고 주변을 보여주고 있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아, 그들은 바빌론이라는 먼 땅에서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말하기를, 당신이 말하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언젠가 와서 이 모든 것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적어도 내 시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요점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을 멀리 떨어져 있고 이상한 종류의 외국 땅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글쎄,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 왜냐하면 페르시아인들이 등장했을 때 페르시아인들은 심지어 셈족 민족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인도-아리안 민족입니다. 페르시아어는 셈어족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언어입니다. 이제 페르시아인들은 바빌론의 관습 등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페르시아인들이 그랬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기저기서 빌리는 것을 좋아하는 매우 절충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페르시아 문화가 동양적인 스타일에 더 잘 적응했지만 그들은 외국인이었습니다. 내 말은, 그들은 유다가 익숙했던 것과는 상당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인들이 이곳에서 왔습니다. 지리적으로 페르시아보다 훨씬 더 멀고, 이념적으로,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유대인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권력의 중심은 로마에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이념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는 대군주의 얼굴이 점점 더 이상해지고, 점점 더 낮설어지고, 과거 유다 백성들이 알고 있던 것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인물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역사적 개관을 마무리할 곳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헤롯 대왕의 인물입니다.

물론 헤롯은 신약성서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베들레헴 주변 지역의 아기들을 모두 죽인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한 책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한 사람들의 학살은 이 전공을 이끌어내는 성경의 위대한 에피소드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 사이의 메타 서술 호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가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져 익사시켜 구출될 가능성, 즉 백성들이 그를 대항할 가능성을 없애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헤롯 대왕이 자신의 왕국과 통치에 위협이 된다고 여겼던 구원자,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아기들을 죽이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적 조사가 끝나는 지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에 헤롯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유다 백성의 마음에 불붙은 희망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약 시대, 심지어 아브라함 시대에도 언젠가는 그들이 이 사랑의 언약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 묶이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누군가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의로움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모세가 되고, 고통받는 종이 되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중간기 유대교에 대한 우리의 조사가 끝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 이전의 유대교, 세션 1, 큰 그림에 대해 토니 토마시노(Tony

Tomasino)입니다.